

엘레이니 (Taiwan)

16Y+

#industry insider

#health

#self-growth

#disability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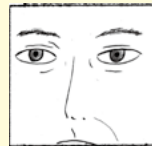
11



장애가 생겼다, 기이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.
작업치료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로, 독자들에게
'건강한 삶'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.

장다는 일레이니가 작업치료사로서 맡은 두 번째 환자였다. 하반신 마비의 그가 일상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미션이었다. 일레이니는 조심스럽게 노심초사하며 장다를 대하지만, 장다는 오히려 유머러스하게 자신의

처지를 받아들인다. 열심히 물리치료를 한 결과, 장다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법을 익히는데, 그 방법은 일레이니의 머릿속에서, 마치 안에 들어가 앉아 몸체를 조종해 자신있게 움직이는 로봇 같았다.



English sample
<https://lilhi2.com/pzOZm>

Manga

Anticipation
Adventure
animation

13Y+

#apocalypse

#environmental crisis

#austronesian

#marine life

하루살이 섬

만화 **예창칭** (Taiwan)

글 **리상치아오** (Taiwa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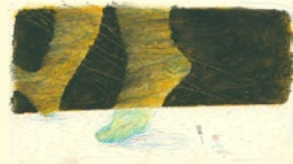
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된 근미래, 유일하게 잔류한 낙원인 '하루살이' 섬은 불길한 징조로 취급받는다. 지구 대재앙의 시대에, 인류는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나갈 수 있을까?



17

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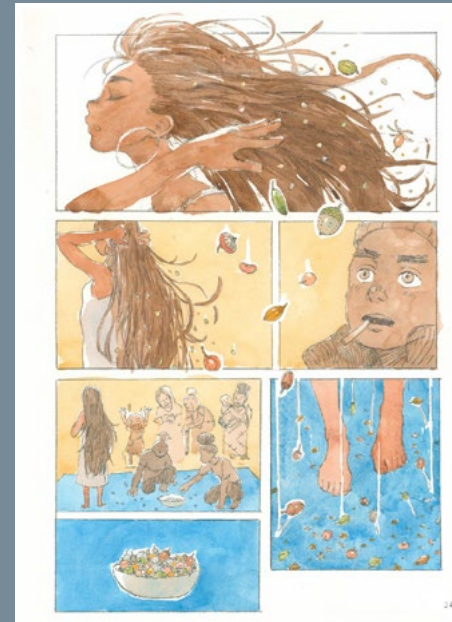
본 서는 남도문화와 자연생태계 재앙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결합해,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만화이다. 지구생태 시스템이 붕괴된 근미래, 육지는 무수한 작은 섬과 도시로 변한다. 도시 속 각 종족 사람들은 서로 섞여 살고, 비행과 전투는 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능력이 되며, 동식물은 중요한 협상카드이다. 책은 세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절묘한 사운드 디자인과 영화 같은 스타일의 풍부한 사운드트랙이 특징인 동명의 애니메이션 영화의 프리퀄 역할을 한다. 세 여성 캐릭터의 선택을 통해 삶의 연속이라는 주제를 논하게 한다.



1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

2장 꽃이 피길 기다릴 때

3장 사히 마친다. 새



Published in 2020 | Four colors | 160p | 170x230 mm | 1 Volume (end)

- Japan International Manga Award Bronze Prize
- A namesake animation film is in development
- Rights sold: French (Nazca), Italian (IF)



English sample
<https://lihi2.com/DGqXA>



Japanese sample
<https://lihi2.com/H2WwX>

Graphic Novel

Black comedy
Drama based on
truths

정신요양병원으로의 여행

팜 팜 리우 (Taiwan)

Adults

#trauma

#mental disorder

#violence

#social issue

#childhood

의사도 하나 없는 요양원에, 막 입원한 주인공은 각종 환각상태를 겪는다. 요양원 환우들이 만들어내는 혼란 속에서 한발 한발 과거 자신이 겪은 트라우마의 진실을 보게 된다.



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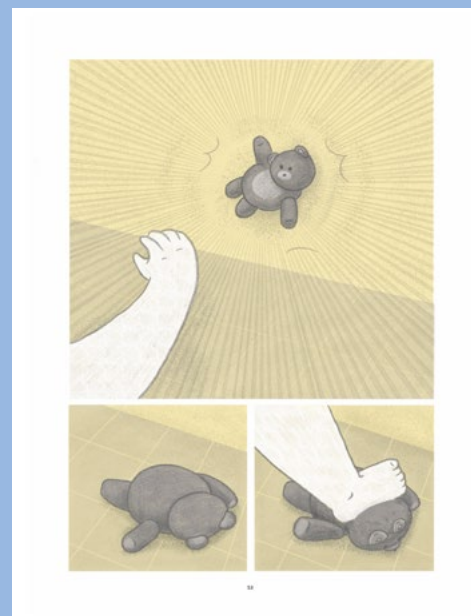


본 서는 타이완 그래픽노블 중 처음으로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.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높은 문학성을 보여주고, 보편적인 공감을 얻고 오락적 재미까지 갖추고 있다.

이야기는 요양원 안과 요양원 밖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. 요양원 내의 개성 뚜렷한 정신병 환자들이 환상, 최면 등을 겪는 등 다소 몽환적인 이야기를 통해, 작가는 주인공이 어릴 적 겪었던 폭력을, 지금의 병을 만든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까지 한층 한층 적나라하게 폭로한다. 요양원 바깥에서는 주인공 가족들의 입을 통해 트라우마가 된 사건의 잔혹함과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됨을 말한다.

본 서는 독자들이 정신질환 환자의 상태를 근거리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게 하고,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의 본질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을 깨닫게 한다. 비록 무거운 주제이지만, 작가는 늘 그렇듯 자신의 블랙유머를 발휘하여, 독자를 웃게도 바짝 긴장하게도 만든다.

언뜻보기엔 정리되지 않은 듯 거칠고 단순한 그림체이지만, 색깔, 크기, 부호, 컷 여백 등에 작가가 각종 고심한 의도가 숨어 있다.



Published in 2019 | Four colors | 336p | 170x230 mm | 1 Volume (end)

- 2020 Taipei Book Fair Award (Fiction)
- 2020 Golden Comic Award (Best Comic of the Year)
- Rights sold: French(IMHO)



English sample
<https://lihi2.com/CwKaQ>

*Full content available in English.

Graphic Novel
Drama based on
truth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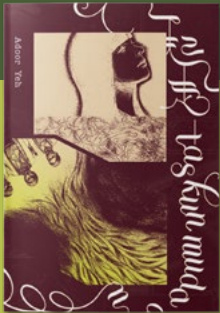
16Y+

- #local revitalization
- #local economic
- #aboriginal culture

같이 갑시다

Adoor Yeh (Taiwan)

한 원주민 마을을 새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기
위해, 디자이너, 기금회, 귀촌 청년, 마을 어
르신들이 각자 가진 힘을 보태기로 한다.



22



'아이신 유기농기금회'는 한 타이완 원주민 부족족 한 마을에서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를
시작한다. 중을 보존하기 위한 밭을 만들고, 다양한 작물을 심으며, 전통양식의 집을 지
어 부족족의 문화를 재현한다. 디자이너를 초빙해 브랜드를 경영하고, 생태연구자들이
현지의 생태와 변화를 기록하게 했다. 청년요리사들은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고, 만화가
들은 마을 노인들과 함께 지도를 그린다. 타이베이에서 온 이 열정적인 팀은 자신들은 그
간 지역 재생 프로젝트들이 자주 범했던 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다. 가령 팀이 떠나
고 난 후,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거나, 상품이 팔려도 정작 마을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
등의 일 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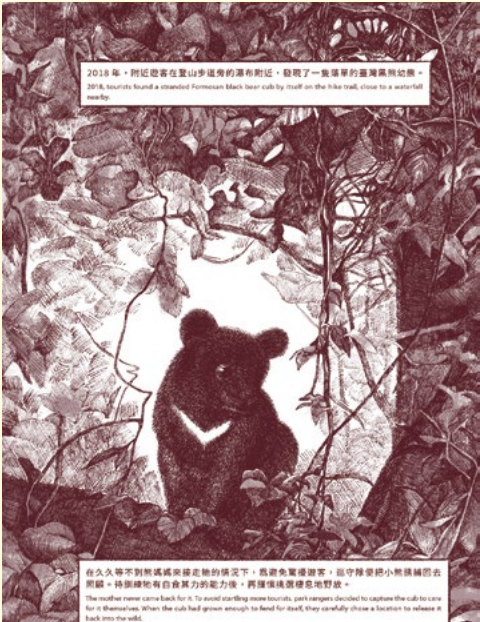
열심히 활동하는 그들에, 마을 사람들은 관심가지지 않았다. 마을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매
우 복잡했고, 참여자마다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. 스스로는 공익을 위한 일이라 여기지
만,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? 본 서는 가감없이 이 팀이 미처 보지 못한 맹점,
마을 내의 대립과 충돌,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엮이게 하는 지역의 음식과 춤, 노래가 있는
생활을 그린다.

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 서는, 지역 활성화 사업의 어려움을 솔직하면서도 지
나치게 비판적이지 않게 묘사하며, 일상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
음을 보여준다.



English sample
<https://lihi2.com/Tubxs>

*Full content available in English.



Japanese sample
<https://lihi2.com/oaYDW>